



주말, 다시 따뜻해진다

남해안 일부지역 5~10mm 비

주말과 휴일인 18~19일 광주·전남은 흐리지만 기온이 올라 춥지 않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8일 광주·전남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 낮 최고기온은 11~14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라며 "내륙 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5~10mm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17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흐린 날씨가 19일에도 계속되지만, 기온은 3~4도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19일부터 차운 대류성 고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현기자 jhlim@kwangju.co.kr

신안 양식전어 日 첫 수출

과잉생산에 따른 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안 양식 전어가 일본에 첫 수출됐다.

신안군은 17일 부산 S 교역을 통해 일본에 보낸 압해도 전어 샘플 400kg이 합격 판정을 받아 최근 요리재료 가공업체에 1t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각종 요리 재료로 사용될 이 전어는 이를 24시간 선적해 모두 50여 품을 수출하게 된다"면서 "과잉생산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 민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9월 중순 kg당 1만 5천 원에 판매되던 양식 전어가 3천 원 이하로 폭락하자 전어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안=조원기자 wncho@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실패

전남대교수협 등 잇단 항의 성명

전남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는 전남대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실패와 관련,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여수대와 통합전체 조건이었던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조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적극 호응, 각종 난관을 극복하고 국립 종합대학로서는 유일하게 여수대와 통합했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가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이라며 "정책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무시하면 누가 고통을 감내하며 정책에 호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전남대 총동창회와 여수대 총동문회도 16일 성명을 내고 "2012년 세계해양박람회 여수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도, 전남 동부권 균형발전 의지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한의학전문대학원 인가에 대한 정부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무효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상위권 10~20점 떨어질듯

광주지역 일선 고등학교가 17일 고 3 수험생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체점수를 한 결과, 자연계 상위 4% 이내인 1등급 학생들의 원점수가 모의고사에 비해 10~20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계 상위권의 경우 일부 학교에서는 5~10점 오른 데 반해 또 다른 일부 학교에서는 5~15점 떨어지는 등 학교에 따라 회의가 엇갈렸다.

인문계는 사회탐구 영역이, 자연계는

지역 고 3대상 수능 자체점 결과

사회탐구·과학탐구·수리 '가' 어려워

450점대 이상 고득점자 줄어들 전망

수리 '가'와 과학탐구 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 주요 입시학원 영역별 점수 전망

인문계 상위권 9점 상승
자연계 같거나 소폭 상승

16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계 상위 4% 이내인 1등급 학생의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역 원점수가 지난해 수능보다 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자연계의 1등급 상위권 학생의 원점수는 지난해와 같거나 1점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메가스터디 "인문계 상위권 9점↑, 자연계는 같다" = 온라인 교육기업인 메가스터디(www.megastudy.net)가 17일 수험생 9만7천 558명을 대상으로 무료 채점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인문계의 경우 상위 1등급의 언어와 수리 '나', 외국어 영역의 원점수(300점 만점 기준)가 지난해 수능의 273점보다 9점 높아진 282점으로 추정됐다.

자연계의 1등급 원점수는 지난해(276점)와 같은 것으로 예상됐다.

무료 채점 서비스를 받은 수험생은 전체 수능 지원자의 16.7%에 해당된다.

올해 탐구영역과목의 나이도 대체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탐구영역 중 1등급 원점수가 지난해 수능보다 상승한 과목은 한국 현대사(2점)와 법과사회(6점), 한국지리(1점) 등 3개 뿐이었다.

반면 윤리(-7점)와 경제지리(-3점), 세계지리(-3점), 세계사(-2점), 정치(-1점), 경제(-1점)과목의 1등급 원점수는 떨어졌다.

◇청솔학원 "1등급 원점수 인문계 9점, 자연계 1점 각각 상승" = 청솔학원평가연구소는 인문계 1등급 원점수는 지난해 수능(274점)보다 9점 오른 283점으로, 자연계 1등급 원점수 277점에서 278점으로 약간 상승할 것으로 각각 내다봤다.

이는 청솔·이투스 사이트 및 휴대폰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모바일 채점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4만5천 352명을 대상으로 자체점수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 인문계의 원점수 평균은 300점 만점에 172.6점으로 지난해 수능의 172.25점보다 0.35점 상승한 반면 자연계의 원점수 평균은 지난해 184.19점에서 182.16점으로 2.03점 하락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초·중·고생 5,500명

"아토피 피부병"

광주지역 전체 초·중·고생의 2.5%인 1천500여명이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17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지역 21만8천445명의 초·중·고교생들 가운데 5천540명(2.5%)이 아토피 피부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초등학생은 13만2천169명 중 3천184명(2.4%)이, 중학생은 2만7천18명 중 772명(2.9%)이, 고교생은 5만9천258명 중 1천584명(2.7%)가 각각 아토피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전체 282개 학교별로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0~7.9%로 큰 편차를 보였다"며 "시교육청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의 정착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각계대표 시국선언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대표 100여명은 17일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경제를 파탄시키는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별도 자체점 결과가 판이했다.

서석고의 경우 최상위권은 5~6점, 상위권은 10점 떨어졌고 인성고도 최상위권은 5~10점, 상위권은 10점 하락했다.

동아여고는 최상위권의 경우 15점, 상위권은 10점이 하락했다.

반면 전남여고는 최상위권과 상위권 모두 20점 올랐고, 문성고도 최상위권이 5~6점, 상위권이 10점 올랐다. 고려고도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5~6점이 올랐다.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광주 서석고 최상위권(상위 2% 이내) 학생들의 원점수가 모의고사보다 10점 정도 낮아졌고 상위권도 20점 가량 떨어졌다.

인성고 역시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15~20점 낮아졌으며, 상위권도 20점 하락했다. 전남여고도 최상위권과 상위권 모두 10점 정도 떨어졌다. 문성고는 최상위권의 경우 5~6점, 상위권은 10점 낮아졌다.

고려고는 최상위권은 수학 실력이 뛰어난 학생은 10점 오른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은 10~20점 떨어졌다. 동아여고의 경우 최상위권과 상위권 모두 모의고사와 비슷한 점수가 나왔다.

그러나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우침 6979 김홍두



호프집 여주인 목 졸린채 숨져

호프집 여주인이 가게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오후 1시30분께 해남군 해남읍 내리 김모(여·46)씨의 호프집 안방에서 김씨가 전깃줄에 목이 졸린 채 숨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 박모(여·5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발견 당시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 얼굴과 뒷머리에 타박상을 입은채 발견됐다.

/해남=박정우기자 jopark@

"도우미 불러달라" 손님들에 행패

○광주 북부경찰은 17일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행패를 부린 서모(3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17일 새벽 0시2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이모(56)씨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여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이씨가 말리자 욕설을 하는 등 20여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서씨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해 '없다'고 하자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한 반면, 서씨는 "어떤 여자가 뺨 때려서 누군지 확인하려고 일행들이 있던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배기자 lsbb@kwangju.co.kr

정동채의원 前보좌관 영장

검찰 '게임비리' 관련 수사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율중장

지검 특별수사팀은 17일 상품권 발행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정동채 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41)씨에게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따르면 유모는 지난해 3~7월 상품권 업체 CS클럽 코리아의 혐의를 받고 보증서를 위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S사 전 상무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CS클럽 코리아의 혐의를 받고 서울보증보험의 혐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우대기업 연대 보증서를 위조해주고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있다.

검찰은 유모가 문화관광부와 계약으로 세입금을 활용해 CS클럽 코리아를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지정받게 해주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상품권 발행업체의 청탁을 받고 보증서를 위조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S사 전 상무 장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CS클럽 코리아의 혐의를 받고 서울보증보험의 혐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우대기업 연대 보증서를 위조해주고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